

秋史 金正喜의 漢文書翰考

梁 淳 秘

目 次

- | | |
|-----------------------|---------------|
| I. 序 言 | 3. 중형에게 보낸 書翰 |
| II. 流配地 濟州島에서 보낸 漢文書翰 | 4. 조카에게 보낸 書翰 |
| 1. 아우에게 보낸 書翰 | III. 結 論 |
| 2. 아들에게 보낸 書翰 | |

I. 序 言

書翰이란 일상적으로 상호간에 音信을 통하는 것이다. 동양에서는 이런 상호간의 音信을 통하는 私文書가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명칭이 있었다. 書狀·書札·書翰·尺牘·尺素·手簡·消息·玉章·書契·雁書·雁札¹⁾ 書簡·書牘·書字·札翰·片緒·手札·信書·竿牘²⁾ 등이 그것이다.

1) 平凡社刊《世界大百科事典》(20). 平凡社, 1963. p. 118.

2) 李御寧編《世界文章大百科事典》(4). 金中堂, 1971, p. 220.

우리 나라의 경우 書翰의 개념은 갑오경장 이전에 쓰여진 國文專用 및 漢字混用의 書簡 일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협의적으로는 개인 및 집단간의 書翰이고, 광의적으로는 公的 性格을 띤 傳教·懿旨·呈狀·所志·白活 등 古文書의 일부 영역에서 속하는 것과 遺書·怨文까지 包括되는 것이라 규정한다.³⁾ 요컨대 문학이란 작자와 독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니 비록 독자가 특정한 것이 아니라도 문학의 내용이 작자의 호소인 만큼 독자라는 대상이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문학은 書翰文의 성격을 더욱 농후하게 띠는 것이며 따라서 書翰이 문학의 原型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書翰이 문학의 淵源 및 胎盤이며, 문학의 생성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은 당연한 귀결이다.⁴⁾ 서간이란, 직접 대화 형식으로 자기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하지 못하는 경우에 쓰인다.⁵⁾ 곧 자기가 어떤 특정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직접 면대에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글로 써서 보내는 것이다.

서양에서는 일찍부터 여러가지 문학형식이 서한문으로부터 分化 成長하였지만 동양에서는 극히 근대까지 書翰이 그대로 襲用되어 왔으니, 그것이 문학적 기능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翰墨이라고 일컬어져 왔다. 때로는 書藝와 文人畫와 공존하는 경우도 있었다.

翰墨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고 그 안에 詩가 있고, 隨筆이 있고 評論이 存在한다. 이와 같이 외견상의 형식은 일반 書翰文이지만 그 속에는 發信人이란 작자에 受信人이란 독자와의 사이에 잡다한 문학작품이 포함되어 차원높은 문학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古文眞寶」의 예를 두고 볼 때 그 속에는 많은 書翰文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동양에서 書翰文이 갖는 문학적 위차는 다대한 것이다.

秋史 金正喜의 문학세계를 분석해 보면 이 翰墨의 비중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크며 清代의 여러 학자들에 비해서도 秋史 쪽이 이 면에서는 월등하다고

3) 金一根 “諺簡의 綜合的 研究”, 《省谷論叢》 5집. 1974. p. 9.

4) 위의 글. pp. 12-13 참조

5) 白鐵의 《文章教室》 日新社, 1961, p. 241.

하겠다.

그리고 또한 기적같은 현상에 秋史의 한글書翰이 있으니 이 문제는 秋史 金正喜의 文學이 개인적인 면에서나 韓國文學이란 민족적인 면에서나 刮目할 일이다.

이 글에서는 秋史 金正喜가 尹尙度 獄事의 再論으로 憲宗 6년(1840)에서 9年 동안 濟州島 大靜縣에서 유배생활⁶⁾을 하면서 유배지에서 집안의 종형과 동생, 아들과 조카들에게 보낸 가족관계의 漢文書翰 21편을 대상으로 하여 고찰키로 한다.

II. 流配地 濟州島에서 보낸 漢文書翰

秋史의 한 생애를 더듬어 보면 그는 서한을 쓰기 위해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는 서한을 쓰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도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 만큼 평생 동안 많은 서한을 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우선 秋史의 文集을 살펴 보면 「書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阮堂先生全集」⁷⁾의 編次를 보면 다음과 같다.

卷一 攷(8)⁸⁾, 說, 辯. 卷二 疏(6), 書牘(48). 卷三 書牘(35). 卷四 書牘(15). 卷五 書牘(43).

卷六 序(3), 記(3), 題跋(43).

卷七 箋筆(4), 箋銘(4), 頌(4), 頌箴(3), 上樑文(2), 祭文(4), 墓表(1), 雜著(24). 卷八 雜識. 卷九 詩와 卷十 詩(563).

이와 같이 卷二, 卷三, 卷四, 卷五 中에서 241편의 서한과 卷七의 雜著中 24편이 사실상 書翰이고 보면 文集 卷九, 卷十의 詩 563수에 비하면 半分量에 가까운 265편의 서한이 들어 있으니 그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이며, 다른

6) 《顯宗實錄》 권7 6년 庚子 9월 辛卯조 “鞠囚罪人正喜大靜縣 園籬安置”

7) 후손 金翊煥편 10卷 10冊(1934)

8) ()안의 數字는 편수 표시임

사람의 것과 비교하면 문집 전부가 書翰文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秋史의 문집이 완성되기까지의 그 경위를 보면 <阮堂尺牘>이 高宗 4년(1867)에 2권 2책으로 처음 간행되었고, 그 뒤에 <草研齋詩藁>가 7卷 2冊으로 역시 南乘吉의 손에 의하여 같은 해에 간행되었으며, 그 뒤(1868)에 이것들이 토대가 되어 閔奎鎬가 <阮堂先生集> 5卷 5冊으로 본격적인 文集으로 간행하고, 이것을 底本으로 하여 前記 <阮堂先生全集> 5권 10책이 1934년에 후손 金翊煥에 의하여 출간되어 그 완성을 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秋史文集의 출발이 書翰集인 <阮堂尺牘>이란 점에서 書翰이 秋史의 업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차원이 높다는 것을 사실상 입증하는 것이다.

이상은 文集 중의 서한을 가지고 본 것이다. 현재 국내 蒐藏家들이 寶藏하고 있는 秋史의 眞蹟 書翰을 헤아린다면 數百篇에 이를 것이다. 이와 같이 秋史 金正喜는 편지쓰기가 그의 일생이었다고 할 정도로 서한을 많이 썼다. 그의 불우한 생애 중에 유배생활만 하더라도 濟州島의 大靜縣과 北靑 등지 전후 11년에 걸친 長久한 세월이었다. 아마도 서한이 아니었더라면 그 고독과 불운이 겹친 지리한 세월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서한 중에는 일상생활을 주고 받는 常茶飯한 것도 있겠지만은 學問과 藝術과 人生을 논하고 수필과 평론의 성격도 많았다. 이런 점에서 그의 서한이 일반의 類와 구별되어 높이 평가되는 것이다.

1. 아우에게 보낸 書翰⁹⁾

秋史가 流配地 濟州島의 大靜縣에서 보낸 서한 중 둘째 아우 命喜에게 4편, 막내 아우 相喜에게 9편이 있다. 우선 둘째 아우 命喜에게 보낸 서한을 살펴 보기로 한다.

9) <阮堂先生全集> 권2 속의 興舍仲命喜와 興舍季相喜 등의 書翰은 그 發信 年記를 밝힌 崔完秀역의 <秋史集>, 현남사, 1983.을 따랐다.

去二十七登船時 略付數字於鳳儀 使之先歸……………仲季形貌黧黑庚 瘦削
必有生病之慮 間或有勝而努力加漚 努力試藥 使此海外一念懸懸者 得以紓 千
萬心祝

〈「阮堂先生全集」 卷2 與舍仲命喜(1)〉

秋史가 들쭉 아우 命喜에게 보낸 서한 第1信的 서두이다. 그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憲宗 6년(1840) 尹尙度 獄事의 再論으로 濟州島 大靜縣에 園籬安置
의 流刑을 받아 동년 9월 27일 海南에서 승선하여 당일에 濟州의 關門인 禾北
鎮 浦口로 入島하게 되었다. 승선하여 하인 鳳에게 편지를 써서 부쳤다는 내
용과 그 들쭉 아우 命喜, 막내 아우 相喜의 건강을 걱정한 질은 友愛가 표백
되어 있다. 이어

吾行其日……………午後風勢頗猛利 波濤湧起, 船隨以低仰, 船中之初行諸
人, 自金吾郎以下, 至於吾之一行, 無不量眩顛倒景色其間 而吾則幸無暈症
鐵日在船頭 獨自喫飯, 與舵工水師擊 同甘分苦 有乘風破浪之意, 顯此壓累人
何敢白有實 惟王靈牧 監 而穹蒼 亦似有憐而垂矜矣 夕陽時 直抵濟城之禾北鎮
下

風勢가 나빠 激浪이 심하여 舟行이 심히 어려워 죽을 고비였는데도 9월 27
일 당일 禾北鎮에 도착, 入島케 되었는데 이것이 모두 天祐神助요, 聖恩에 있
음을 감사하였다. 이러한 심경은 그의 7언시 「瀛州禾北鎮途中」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이어

大靜在州城西八十里 其翌大風 無以前進 又其翌即初一日也 風止故 遂與金
吾郎登程 半程即純是石 路人馬雖難着足 半程以後稍平 而又從密林茂析中行
塵通一線天光 皆是嘉樹美木 而冬青不凋 間有楓林 如猩紅 又異於內地楓葉
甚可愛哉 而嚴程蒼皇 有何趣况擊

곧 流配地 大靜縣으로 가는 路程을 쓴 한 대목이다. 아름다운 濟州島의 대

자연이 매우 사랑스러워 구경할 만했으나 流刑囚로서 갈 길이 멀하고 바쁘니 무슨 흥취가 있겠으며, 하물며 어떻게 흥취를 둘 수가 있겠느냐고 표백한 분위기에서 秋史의 流配의 狀況에 직면한 精神的 狀況의 일면을 고찰할 수가 있다.

得宋校啓純家住處，而此家果於邑抵之稍勝 而亦頗精滄 堦則爲一間 南向有眉退 東有小廚 自小廚北 有二間廚 又有庫舍一間 此則外舍 而又有內舍之如此者，內舍則使主人 依舊人處 只既外舍割半分界 足以容接，小廚行將改堦 則客儻輩 又可以入處 此則不難變通云矣 龜園違家形址爲之 庭階之間 亦可以行飯所處 則於分過矣

10월 1일 大靜縣에 도착, 포교 宋啓純의 집이 謫所로 정해졌다. 그 집을 리얼하게 묘사하였는데 逸品이다. 당시의 大靜縣의 가옥구조를 이해하는 데 근거가 되는 좋은 대목이다. 秋史가 부인 禮安李氏에게 써 보낸 한글 서한에서도 “집은 넉넉히 용신하을 만한대을 어더 한간방의 마로잇고 집이 경하야 별노 도배할 것 업시 드러사오니 오히려 과하온 듯 하압”¹⁰⁾이란 대목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부인과 둘째 아우 命喜에게 알린 것이다. 秋史는 宋啓純의 집에서 謫居, 후일에 姜道淳의 집으로 移謫하여 倉川村으로 옮겼다.¹¹⁾

第1信은 禾北鎮으로 입도 大靜縣으로 가는 路程, 정해진 謫所의 환경 등을 서술하였는데 무사히 입도케 된 것을 聖恩에 돌리고 謫所에서 불편없이 지내게 된 것을 分手가 지나치다 여겨 본 것이다.

第2信은 둘째 아우 命喜의 병증세가 “찬 병의 증세가 끝내 쾌히 떨어지지 않는다(而冷痺之症 終不快祛)”고 듣고 걱정하며 자신의 처지가 “멀리 밖에서 그리워 애태우는 마음은 한 시각을 떠나지 않고 치달리고 있을 뿐… 슬퍼하는 마음 돌이켜 형용하여 비유할 수 없다.(遠外憧憧懸念 無以一刻暫馳……愴缺轉無以形喻)”고 자탄하고 있다. 이어

10) 秋史의 한글 書翰 총 33편 중 第19信 참조, 《阮堂先生全集》 권3 興權 敦仁 第4信에서도 같은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11) 朴用厚 《南濟州郡誌》 상조사, 1975. p. 140.

允婦之順媿 舉丈夫子 是宗祧初有之慶 祖宗眷佑 家運將回 其先之以嘉兒耶 至若在抱之樂 年迫六十 豈不欣喜 此兒非吾所得而私之也 兒生聞在臘晦 其日 即爲天恩上吉也 仰符於先親生辰 亦不偶然 且吾輩之日日禱祝 在於天恩 而兒 以是天恩日生者 尤豈不奇且異耶 兒名仍以 天恩二字命之 甚好……〈中略〉… ……念切念切

〈「阮堂先生全集」 卷2 與舍仲命喜(2)〉.

큰머느리가 先親의 생신과 같은 날인 天恩日에 得男했음을 진심으로 기뻐한 내용이다. 流刑囚로서 집안의 운세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여 “우리가 날마다 우러러 비는 것이 천운에 있다(且吾輩之日日禱祝 在於天恩)”고 함은 君主에게 忌諱당한 처지이면서도 오히려 “亦君恩이샷다”고 戀君해 하는 朝鮮朝의 선비의 의식구조의 일면이라 하겠다. 이어

吾舌瘡鼻 疔尙此作苦 彌延五六朔 雖系醫藥之 無以爲之 而寧有如許支離難堪者, 食物轉難嚥下 下者又滯隔不消 實不知何以爲好 若一縷苟延 則與之消息而已 亦奈何 疔瘡與庠症 又一以並 ……戀兒本生內艱 不勝慘惻 周葬之間 兩家慈蔭 並此幽 翳情理絕酷

秋史가 유배지에서 대여섯 달이나 콧병과 위장병, 피부병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무슨 業報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하고 있고, 養子 商戀가 養母인 禮安李氏를 여회어 한 해 만에 또 생모를 여회니 상중에 또 상을 당한 그 情理의 참혹함에 憐憫해 하고 있다. 祥祭와 譚祭사이를 變禮대로 치룬 것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而亡姊氏諱音 竟此承聆 痛哭痛哭……雖知患候之 萬分危重 而豈料此大海之外 又承此姊氏赴車也 慟矣慟矣 以長逝之近七十年 險阻艱難 無不備經 脫然若懸解者 便復浩然 無少留憂於此世 顧此崎嶇 白首淪落 邀若行路 死生存亡 無一關涉 此何人斯 念於冥冥之中 猶有不能忘 於海外 不肖無狀之身 到底慟裂 生者尤可悲也……〈中略〉……北望長吁 有淚無從而已

〈「阮堂先生全集」 卷2 與舍仲命喜(3)〉

秋史가 둘째 아우 命喜에게 보낸 서한 第3信의 한 대목이다. 그는 근 70년에 험난한 일들을 겪지 않는 것이 없는 누님의 訃音을 듣고 통곡하며 血淚를 뿌리며, 流刑囚로서 “이 기구하고 궁색한 몸을 돌아다 보니 머리는 허영고 세어 가지고 타향에 떨어져 있어서 마치 아득히 길 떠난 나그네처럼 죽살이조차 한 가지로 관계하고 참섭할 수 없으니, 이 무슨 사람이 이러할까(顧此崎窮 白首淪落, 邈若行路 死生存亡 無一關涉 此何人斯)” 하며 자탄하고 있다. 그는 누님의 별세에 앞서 3년전 壬寅年(1842)에 부인 禮安李氏마저도 타계하는 비극을 겪은 바가 있어 이른바 비극의 연속 그것이었다. 이어 늙은 庶母, 둘째 아우 命喜, 막내 아우 相喜, 仲嫂, 두 누님 등의 문안과 庶子 商佑 처의 우환에 대한 심려와 자신의 신병 상태(콧병, 풍치병, 위장병)를 얘기하였다.

去念後 英吉利船 來泊於旌義之牛島 距此爲近二百里 而彼船則別無他事 只是一過去船 而一島騷擾 不能底定 州城如經一亂 此中屢能開論 幸不至如州矣

憲宗 11년(1845) 5월 22일 英國 軍艦인 Samarang 號가 Edward Beleher 艦長 인솔하에 測量 임무를 띠고 濟州島 旌義縣 止滿浦 牛島에 정박하자 온 섬안이 시끄러워서 제주성은 마치 한 차례 난리를 겪은 것 같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 濟州島의 狀況을 이해케 한다.

秋史는 24세 때(純祖 9, 1809) 冬至兼謝恩使 副使가 된 生父 魯敬을 따라 燕行하여 濟나라를 통해 서양사정을 터득한 바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한 개인적인 西歐에의 간접적 경험은 영국 군함의 牛島 정박에도 大靜縣의 민심 동요를 막을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한편 영국 표기를 漢字語로 발음나는 대로 “英吉利”로 표기한¹²⁾ 것은 외래어 표기에도 선각적이었다고 하겠다.

序屬三秋 仲之壽甲載屈 吾輩孤露之餘……又況此時也……(中略)……
…大斗之祝 又何以過其情也 亦有所俯以就之 顧此海外 漠然無與之 相關涉者

12) 외래어 표기는 개화기 이후 일본식 외래어 표기가 유입되었다고 주장되나 여기서는 추사가 청나라를 다녀온 것으로 보아 중국식 외래어 표기를 수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抑何情理 無或以菜莢少一 有所致缺於家室歡洽 亦反復爲我地 天涯一室 何異乎此身之日左右 惟願宜兄宜弟 令德壽 豈永享無疆……〈中略〉……吾比近來 眼花益添 阻食之證轉甚 對案輒欲嘔 全無所下喉 者神氣隨以漸頹 收拾不得

〈「阮堂先生全集」 卷2 與舍仲命喜(4)〉

秋史가 둘째 아우 命喜에게 보낸 서한 第4信的 한 대목이다. 戊申年(1848술)에 둘째 아우 命喜가 회갑을 맞는데 진심으로 축하하는 내용, 그 형제의 우애가 깊음을 서술했고 유배지에서 둘째 아우의 回甲宴을 함께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王維(699-759)의 “遙知兄弟登高處 遍插茱萸少一人”의(형제들이 산 언덕에 올라 저마다 수유가지 꽃을 때 한 사람 부족한 것을 멀리서 알겠네.)의 詩想을 빌어 표백했으며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있음을 알려 주었다. 이어 막내 아우 相喜에게 보낸 서한을 살펴 보기로 한다.

舟梁大慶 八域忭祝 此中最後承聞日子 又於慶禮後 消息始得承聞於今便 是豈一天之下 所同者耶 瞻望耿耿之私 尤無以爲言

〈「阮堂先生全集」 卷2 與舍季相喜(1)〉

秋史가 막내 아우 相喜에게 보낸 서한 第1信的 한 대목이다. 유배지에서 國婚의 큰 경사를 듣고서 신하로서 진심으로 임 가까이에서 기쁨을 함께 할 수 없는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國婚의 경사를 함께 하려는 마음에 戀君에의 충념이 내재되어 있는가 하면, 유배당한 신분으로 이런 나라의 경사를 함께 기뻐하지 못한 신상의 자탄을 표백하였다. 이어

來示——頓悉 千萬思量 不知何以爲計也 一縷之苟延於至今者 竟又何所俟而噉眠如無故人耶 且此見伏 萬無支存之道 惟願速死而已……但此瘴江之骨 收拾無人 亦復何所計較於此也 使戊金舍之 甲金舉銘 亦豈非不忍處耶

유배생활의 어려움을 실낱같은 구차한 목숨으로 죽음에 비유해 표백할 정도로 심각한 일면을 서술한 대목이다. 그런 가운데도 歲船 편에 부친 김치 항아

리는 사고없이 받았고 몇 해만에 처음으로 김치 맛을 보니 심히 입맛이 상쾌하여 입에 지나친 듯하다고 했다.

洪吏便書種 無訛收入 而以本草 詩醇 律髓之種 而留置 未及來者 此中人
又賺錢專人矣 遂無早白 極可怪也 前後所及 如干書種 幸圖速便付送 甚幸 而
君又見病 無以隨即覺出 雖此些少事 凡關涉於此身 而不順成 皆如是耶
〈「阮堂先生全集」卷2 與舍季相喜(2)〉

막내 아우 相喜에게 보낸 서한 第2信의 한 대목이다. 집에서 부쳐온 책들을 무사히 받았는데, 그 중 중국 최대의 의약서인「本草綱目」52권, 「御選唐宋詩醇」47권, 「羸奎律髓」49권 등의 서책은 아직 받지 못했다는 내용인데 大靜縣의 사람들이 돈을 거두어서 사람을 보내어 그 서책을 입수코자 한 점에서 秋史와 濟州島民과의 교류의 일면을 보여 주는 한편 그가 유배지 大靜縣에 끼친 문화적 영향의 단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其中書畫譜一匣 及周易折中 家中舊本之爲兩匣者 頗便於遠來 必先圖之 外
此諸種 亦隨以漸次寄來 寔爲少得鎮心之方 而此往復 動經三數月 或拖至半年
然後始得獲見 是尤豈耐住處耶 養生非徒所存不草草 人品絕佳 末俗之希有者
也 幸於寂寞之中 得以少慰

秋史가 流刑囚로서의 不安感, 그리고 부인 禮安李氏가 他界하여 3년, 이어 姊氏마저 사망한 직후이고 보면 우울할 수 밖에 없는 精神의 狀況이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진정시키는 방법으로 書畫와 「周易」에 몰입하려 든 점을 이해할 수 있다.

「書畫譜」란 淸나라 孫岳頒 등이 奉旨纂한 「御定佩文齋書畫譜」100권을 말함인데 역대의 書畫를 품평하고, 書畫家傳 및 書畫跋, 書畫辯證, 監鑒藏 등 서화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수록하여 고증, 주석한 것이고 「周易折中」이란 청나라 聖祖가 御纂한 「御纂周易折中」22권을 말함인데 「周易」의 訓解에 諸家の說을 종합하여 經義를 발명한 것이다.

秋史가 유배생활 중 이것을 막내 아우 相喜에게 부쳐 보내도록 당부한 점에
서 그의 예술과 학문의 경향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한편 濟州의 後學人 姜
生¹³⁾이 秋史의 문하가 된 일을 말해 주고 있다.

李君尙迪許 所託書包 不知何時可得付來耶 頃因洪吏錫祐 有 申一書 而碑
圖借便 寄來之地 聞舊收獲送下隸 其盡歸來 而遂無聞 抑洪吏不所傳書 而亦
不致力而然耶 亦可訝

〈「阮堂先生全集」卷2 與舍季相喜(3)〉

李尙迪(1804~1865)은 중국을 왕래하던 譯官으로 書法과 金石學統을 秋史로
부터 이어 받은 사람이다. 그가 중국에서 가져온 책꾸러미가 언제 부쳐 올 것
인가 기다려지는 마음을 표백한 것으로 막내 아우 相喜에게 보낸 서한 第3信
의 한 대목이다. 秋史와 尙迪은 사제지간이다. 권세에서 쫓겨나 유배생활중인
秋史를 스승으로 받드는 인간된 성실성에 감동하여 秋史는 尙迪에게 그 불후
의 명작인 「歲寒圖」(1844)를 그려주고 거기에 자기의 심정을 題跋로 남긴다.¹⁴⁾

家藏有不題籤之法帖兩套 青布匣黃木衣 此名藏眞帖者也 內有稍書千文 鍾
書靈飛 以及宋元人書者 辛隨暇覓出 付送於秋秤來時 鴻山叔主 借去端木國瑚
周易比亦爲覓來 同送之地 如何如何

「歲眞帖」이란 명나라 萬曆末 陳元瑞가 새로 새긴 「渤海藏眞帖」 8권을 말함
인데 권1에 鍾紹京의 「小楷靈飛經」, 권2에 褚遂良의 「千字文」 및 「蘭亭敘」,

13) 《文學思想》(119) 1982. 9 “秋史詩抄” p. 206에 ‘서마을 아들에게 보
이다’ 속에 ‘流水村’과 ‘姜生’이 나오는데 ‘流水村’은 제주도 북제주
군 애월읍 금덕이에 있고 ‘姜生’은 姜琦輿임이 조사 결과에 확인되었
다. 姜生은 애월읍 금덕리 유수촌에서 먼곳 대정현 倉川村의 적소에
찾아가 한겨울 동안 합숙하면서 문하가 되고 사숙하였다고 본다.
《阮堂先生全集》 권2 與舍季相喜 ‘姜生……伊亦姑無去意, 第此貿之而
過冬 接濟之道 甚悶 孟飯不難 而最是絲身一條路 頗關心耳’란 대목이
이것을 뒷받침한다.

14) 拙稿 “秋史의 歲寒圖題文攷” 《제주도》 76호 제주도 문화공보실 1979.
p. 50.

陸東之의 「蘭亭詩」, 권3에 蔡襄의 詩牘, 蘇軾의 尺牘, 권4에 蔡京의 「大觀御筆記」, 黃庭堅의 尺牘, 米芾의 「籀閒堂記」, 권5에 米芾의 擬古詩 및 米友仁의 「蘭亭跋」, 권6에 趙孟頫의 「小楷黃庭內景經」, 「樂毅論」, 「臨友軍三帖」 권7에 「真草千字文」, 권8에 「梅花詩」, 「題桃園圖尺牘」 등이 새겨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藏眞帖」과 「周易指」 등 두 벌을 秋史가 막내 아우 相喜에게 부쳐 보내도록 당부한 것인데, 이 점에서 또한 그의 예술과 학문의 경향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文編中 果有可喜處 非一二 無緣共嘗 獨自看過 亦有何意趣耶 磊磊落落書
 ……明末遺民事 尚有可考於此 ……大抵著書之難 ……中庸說 昔曾聞之
 今見其說 亦千古未發之旨 ……然向誰說此 ……七政 如來 隨送帖帖 隨來
 送之 何必早晚計也 藝海珠塵一卷之抽置者 ……未知兒輩取取 而從近便付
 送如何 唐空帖三卷依到 而不止此三卷矣 只是三卷云者 大是怪訝.

〈「阮堂先生全集」 卷2 與舍季相喜(4)〉

막내 아우 相喜에게 보낸 서한 第4信은 李德懋의 靑莊館全書 중의 「磊磊落落書」와 그밖에 「明末遺民事」, 「七政帖」, 「如來帖」, 「隨送帖」, 「藝海珠塵」 등을 부쳐 보내도록 당부함과 「唐空帖」 10권 중 3권을 받았음을 알린 용담이고 「中唐說」을 읽고 나서 천고에 나오지 못하는 훌륭한 논지였음을 새삼 깨달았으나 과연 누구와 말할 길이 있는가고 토로한 내용이다.

罪通有頂 疊積如山之無狀累蹤 何以得此於今日也 只有感淚被面而已 有非
 語言文字 所得說到者也 況又拙書之特紆宸眷 至於紙本之下來 龍光所被 大海
 神山 無不震動

〈「阮堂先生全集」 卷2 與舍季相喜(5)〉

秋史가 막내 아우 相喜에게 보낸 서한 第5信의 한 대목이다. 流刑囚로서 썼던 拙書가 宸眷을 입게 되어 君恩에 감동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어

近因眼花轉欲 萬無由孰管臨池 王靈攸益 費得十五六日工力 僅得寫就 扁三

卷三 而餘外二卷 以若花翰 萬萬無續寫之道 未免還爲呈納 據棠陳白 於吳君
書中 極知萬萬懷懷 而不可以強所不可強 亦以此狀 另及於吳圭一爲好

심한 눈병 때문에 붓글씨 쓰기가 힘든 사정을 고백한 대목인데, 그런 가운데도 편액 세폭과 두루마리 셋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성은에 힘입은 바라고 여긴다. 그 밖에 주로 편액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다. 편액·판각할 원본엔 좋은 종이가 긴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二扁 以若眼花 觀此寫就 而來紙礬水太過 不合於使筆 反不如此紙矣 雖刻
本必佳紙 然後可書 以刻本而不計紙者 不知書之艱難處矣 堂扁似更勝於齊扁

秋史는 大靜縣 유배생활 동안 상당수의 서화와 편액 등을 남겼으나 그것이 단순한 소일거리였다기 보다 절망의 심연을 극복하는 승화였을 것이다.

二月望前 海俗不爲發船 望後無礙矣 今此另定一伴以去 而果能即抵耶, 渡
海以後恐不甚滯矣……第教文姑未來到 日日攢手以俟耳 去年亦於二月初來
到 隔海之事 每如是 不勝焦鬱

濟州의 民俗인 영등달인 2월에 보름전에 出漁祭를 가져 그 후에 바다로 배를 띄운다는 바다 풍속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 대목이 있고 매년 초 유배지에 군왕의 사면문이 하달되는데 이것을 기다려 몹시 애태우는 秋史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다.

이어 第6信은 막내 아우 相喜가 손자를 본 것을 집안 운세의 회복에 비유하여 기뻐하며

且聞季抱孫之喜 人孰不有子有孫 在於吾家 不可但以一添丁言 是門戶之大
慶 積祿之流發……先靈垂臨 悅豫之容 湫然如見於無形之中 遇喜感[○] 又當
何懷 黔孫之又是一黔

〈「阮堂先生全集」 卷2 與舍季相喜(6)〉

그 밖에 둘째 아우의 문안, 嫂氏의 병세 문안, 子婦의 분만기에 대한 걱정,

두 누님과 서모 그리고 여러 식구들의 안녕 등 이른바 連袂戚堂間의 안부를 걱정하였고 유배생활에 병약해진 자신의 처지를 표백하였다.

呑狀一如前遊樣 而痰嗽大爲添劇 其嗽急氣不旋之時 血症并發 無非瘴濕爲崇
水泉不佳 積鬱枯滿不散 眠花有加無減 春瘴又早作 不能耐瘴 較益甚焉 恐無
以支吾矣

大靜縣을 殘縣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이 곳은 濟州島에서도 極南端 絶地이며, 교통의 연락이 극히 어렵고 토지도 모슬포를 “못살포”라는 말이 있듯이 척박하다. 또한 바람도 제주섬에서 가장 사납다. 濕雨が 많아서 생활이나 건강에 해로운 惡地다. 샘물도 좋지 않은 곳이다. 그러므로 大靜縣은 인적이 드물고 殘邑이다. 그런 凋殘의 벽지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도 유형수를 대정현에 유배 보낸 것이다. 秋史의 병세는 담과 해수, 기침이 심할 때는 피가 목에서 나오는 정도이다. 이는 바로 이런 대정현의 풍토가 화근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古董與如千種 更有入之之示 而何不另錄詳示耶 極爲紆鬱 古董別無所蓄 今所入之者 卽宋人仿製 雖非商周古物 非近人贗銅所可比也 商周古物 元無東來者 吾之所見 纔三數而已 初不蓄贗銅僞金 家儲所以無此耳 至如無可入之物 而強覓龜毛兔 角亦所不敢

〈「阮堂先生全集」卷2 與舍季相喜(7)〉

막내 아우 相喜에게 보낸 서한 第7信의 한 대목인데 골동품 몇 종류가 秋史 본가에 입수되었다고 들어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 궁금해 한 대목이다. 秋史의 골동에 관한 지식의 풍부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한편 憲宗 12년(1846) 6월 프랑스 해군소장 Cecile이 군함 3척을 이끌고 충청도 외연도에 들어온 정황을 듣고 秋史가 느낀 서양 사정을 피력하고 있다.

佛朗悻書 只是債痛萬萬 至其畏劫於再來 則便郎可笑之事 再來有不可必 設

有再來 以其一船 何以越幾萬里 涉他境惹鬧耶 聞其過去船制 即其中船遍行天下萬國 大船則不得常用 中船人總 不過八百內外矣 以此八百 又何以作鬧他境也

앞서 말한 바와 같이 秋史의 서양 사정은 청나라를 통한 간접적 체험에서 터득하였다. 그러나 1840년대 西洋諸國이 제국주의로 국력을 신장하기 위해 해외에 진출하고 他國을 식민지화 한다는 정세에는 어두웠던 것 같다. 그 예로 그의 서한 第7信을 계속해 보면 다음과 같다.

皇明嘉靖間 番舶稍稍市易於廣東等處 萬曆以後 遂於濠鏡許其入處 而商舶定以二十隻 年年來往 其後二十舶 不能如數 而來稍稍減却 聞近年以來 不過十舶內外云 此皆中舶也 雖以十舶言之 亦不過八千矣 以此八千 又何以遠涉他境 況又十舶 非可論者耶

외국과의 교역의 필요성은 언급함이 없이 외국의 상선은 타국을 침략하지 않으며 실증적으로 中舶 1隻은 8백명 내외인데 10隻이었다 해도 8천명이니 이 8천명을 가지고 어떻게 타국을 침략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10척도 안되는 불과 3척의 군함으로 어떻게 타국을 침략하겠는가라고 반문하여 강조하고 있다.

歲新而海上恰是九年矣 往者屈也 來者伸也 屈伸相感 理有不次歟 況今大慶壘壤 聖孝益光 匝域蹈舞 澤旁流 雖此坎險因阨 亦不外於光天化日之中 默禱暗祝 另有贊攢之私 仲甲又此際回 白首弟兄扼可得歎聚歟

〈「阮堂先生全集」卷2 與舍季相喜(8)〉

유배생활 9년이 되는 戊申新年(1848)에 秋史가 막내 아우 相喜에게 보낸 서한 第8信인데 조정의 聖孝益光을 진심으로 빌고 그 聖上의 德化가 태양처럼 험하고 곤궁한 유배지까지 골고루 미치고, 하루 속히 석방되어 가족이 서로 만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으로 축원하고 있다. 이어 회갑 맞는 둘째 아우 命禧의 강녕, 늙은 누님과 서모의 안녕, 相喜 손자의 돌림병을 치르고 난 후, 애어미의 順產 등 連袂戚堂間의 안부를 묻고 자신의 안부를 말하였다. 이어 진심을 호소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글인 開心表文에 대한 秋史의 소견과

文章道の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盖文字 刪簡爲貴 亦有添長爲貴處 不宜一以刪法 爲定格矣 且有關於音響節
奏 非獨於詩律而已 未知如何 更加十分商裁也

이어 秋史가 濟州島民과의 交流의 일면을 보여주는 대목을 엿볼 수 있는데,
여기서 「本草」 등 세 종류의 책에 관한 얘기는 막내 아우 相喜에게 보낸 서
한 第2信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내용으로 부탁한 책 등을 거듭 부쳐 보내도록
재촉하면서 이 곳 사람들이 돈을 거두어 사람을 보낼 생각임을 말하고 있다.

本草等三種書 此中人聞之 又據錢雇人專此上送 以爲輸致之地 其意不可住
茲以裁書付去 隨郎堅裏以送 如何如何

이어 再從兄 金道喜가 다시 出仕하여 中書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歸來
亭으로 물러나 병을 고치는 것을 낙으로 삼으니 못하지 않을까 하고 건강을
염려하였다.

貞洞從氏 復入中書 雖與首探有異 不如歸來亭中退閒養 之爲勝矣 聞已出
脚云 近節果有勝 而行步凡節 無礙於轉影瀉聲之間耶 爲之耿耿

〈「阮堂先生全集」 卷2 與舍季相喜(9)〉

재종형이 致仕하여 향리에서 조용히 은퇴하고 계실 것을 바라는 마음은 재
종형의 건강상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세도가인 安東金門에 의해 심히 타격받
아 왔으며, 몰락지경에 있는 처지이기에 출사 후에 파생되는 어떠한 희생에도
피해를 보지 말도록 염려하는 내재적인 의미도 깔려 있다고 본다. 結尾의 용
담으로 죽기 전에 예전에 보려고 하던 것들을 점차 유배생활하는 동안 한 번
볼 계획이므로 「淸愛堂帖」을 부쳐 보내달라는 부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막내 아우 相喜에게 보낸 서한 第9信은 석방의 기쁨과 聖恩에 감사하며 歸
鄉케 된 내용이다.

聖恩罔極 特蒙賜環之大澤 惟有祝天祝聖 不知所以枚報也 願此罪孽山積 得
此如天之殊恩 先事至今未伸 叩叫穹壤 雖在恩山德海之中 獨何顏自容於覆載
自人於人類也

“죄가 산같이 쌓인 몸으로 이처럼 하늘 같은 특별한 은혜를 입어”(罪孽山積
得此如天之殊恩) 석방되는 기쁨과 그 聖恩에 감사하면서 선친의 무고한 일이
속히 신원되어질 것을 애소하고 있다. 이어

喜報之來 在於去臘十九……倏此開歲 已至穀日 渾履膺此新霽 百福大吉
詹祝詹祝……七日自靜而發 向本州 一宿於州底金吏家 連兩日冒風行役 不
至更損失……似聞此夕 當有風云 而未可以暫時風候 妄動爲言 不敢徑庭 直
造一時 爲悶迫矣

秋史는 1848년 12월 6일에 석방되나 그 소식은 同月 19일에야 본인이 받는
다. 1849년 정월 7일 歸省키 위해 大靜縣을 출발하여 濟州城에서 본토로 상륙
하기 위해 바람이 자고 바다가 잔잔하기를 기다리는 심정이 안타깝다. 9년 동
안의 유배생활에서 큰 병만 얻어 정신이 가물거려서 매사에 곤궁하였을 때 석
방되는 처지가 되고 보니 하루 속히 귀성하여 그 간의 회포를 토로하고자 한
것은 당연하나 濟州 바다의 바람과 파도로 해서 떠나는 게 늦어지니 그 심정
이야 그 얼마나 안타까울 것인가 쉬 짐작케 한다.

2. 아들에게 보낸 書翰

秋史에게는 양자인 상무와 서자인 상우 등의 아들이 있다. 우선 상무에게
보낸 서한을 살펴 보기로 한다.

天倫大定 宗祧有託 姑未即見一氣之相貫注 非山川所可間 已於來書驗之 吾
既在此 無以面命汝 汝惟葆養汝病慈 恪遵汝仲父訓戒 奉先事長之道 克欽克慎
吾家傳來舊規 是直道以行 兢兢固守 罔敢或墜

〈「阮堂先生全集」 卷2 與商懋兒(1)〉

秋史가 大靜縣에 유배된 다음 해 1841년에 그의 十二寸이 되는 泰喜의 아들이 입양하였는데 이것은 養嗣子 商懋에게 보낸 서한 第1信의 대목인데 매사에 “곧바른 도리로써 행하라(直道以行)”고 하는 家訓으로 “선조를 받들고 웃어른을 섬기는 도리에 힘써 신중히(奉先事長之道 克欽克慎)”하도록 당부하였고 가훈인 “直道以行”은 바로 秋史 집안의 전통적인 가풍과 그의 선비적 사상의 일면이기도 하다. 이어

昕夕之祝 歲滿載新 待狀吉安念切 吾尙無恙如舊年 到底是恩造耳

곧 유배생활을 탈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은 성은에 힘입은 바 크며 그 성은에 신하로서 감사한 내용이다. 이어 養嗣子 商懋에게 보낸 第2信은 둘째 아우 命喜의 문안과 귀양살이의 처지라 한 지아비로서 부인 禮安李氏의 소상과 사당 제삿날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애달퍼한 서한이다.

追祥奄過 汝輩攀痛廓然 吾亦於此一哭除服 寧有如許情理也……汝之仲父
近節益勝 兒少皆安好耶 念念 吾口鼻風火 自冬涉春 如是作苦 悶切 其間祀事
盍展廟之日 次第臨止 遠外年年慟缺

秋史는 憲宗6년(1840)에 유배되어 2년 후에 부인 禮安李氏의 부음을 받았다. 유배된 죄수였기에 아내의 임종을 가까이에서 직접 볼 수 없었고, 한 지아비로서 아내의 장래를 치루지 못한, 괴롭고 원통한, 피눈물 뿌린 슬픈 심사에 젖는다. “나 역시 이 곳에서 한번 울고 상복을 벗었다(吾亦於此一哭除服)”고 한 그 한번의 울음 속에서 그 얼마나 고독의 비애를 통감할 것이겠는가 “그 사이 소상과 사당 제삿날이 차례로 다가왔을 터인데 먼 바다 밖에서 해마다 빠지는 것만 애달파할 뿐(其間祀事 盍展廟之日 次第臨止 遠外年年慟缺)”, 그 애달픔 속에서 부인의 소상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피눈물 뿌려 부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變轉하는 스스로의 운명을 그 얼마나 자탄할 것이겠는가.¹⁵⁾ 한편 입과 코에서

15) 拙稿 “秋史의 悼亡詩의 祭文考” 〈玄平孝博士回甲紀念論叢〉, 營雪出版社, 1980, pp. 413~432.

화기가 나는 증세로 고통받고 있음을 표백하고 있다.

이어 양자 商戀에게 보낸 서한 第3信은 집안의 문안과, 둘째 아우 命喜의 회갑연 등 家間事에 대하여 그리고 둘째 아우 命喜의 회갑에 참석하지 못하는 심회를 표백하였다.

汝之仲父 間自北歸 六十壽傷 與麟兒舉耶 遠外懸誦 尤非他時可比

이어 책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사실과 위장병과 심한 눈병에 고생하고 있다.

青燈黃卷 能不輟課 老人無眠 每念汝輩 讀聲祝若在耳畔 此心良苦 吾如舊
吟嘯 胃道終不清開 眼花一以添欲欲 悶然

朝鮮朝의 선비들이 유배당하면 책과 벗한 경우가 지배적이었는데 秋史도 유배생활 동안에 책을 가까이 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둘째 아우 命喜에게 중국 고전 등을 부쳐 보내달라고 당부했던 점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 당시 「通鑑」·「論語」·「孟子」등을 학습하는 것이 고작이었던 제주도민들은 책과 가까이 하는 秋史에게서 「四書」·「五經」은 물론 서예와 천문 및 산수학 까지도 교육을 받게 되어 과학적인 實事求是의 학문을 접하게 되어 제주도의 근대 학문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秋史의 책과 가까이 하고 학문하는 자세는 학문하려는 濟州島民의 큰 자극과 島嶼 지역의 수준을 높이게 된다.

此邑李生時亨 年少才逸 決意欲此學 其志頗銳 不可阻奪 使之上去 試與同
研 雖其見聞不廣 若使磨泮 足以徹此地不讀者耳 其行從船而去 似遲緩矣

이처럼 濟州島의 後學人 李時亨을 위해 秋史는 본가에 올려 보내니 함께 공부하도록 최선을 당부한다. 이어 庶子 商佑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은 반드시 文字香과 書卷氣가 있는 연후에 蘭을 치는 법과 그 三轉의 妙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今此多紙送來 汝尙不解蘭境趣味 有是多紙之求寫 殊可負苟寫蘭 不得過三

四紙 神氣之相湊 境遇之相融 書畫同然, 而寫蘭尤甚 何由多得也 若如畫工輩
醜應法爲之 雖一筆千紙 可也 如此作 不作可也 是以畫蘭 吾不肯多作 是汝所
嘗見也 今以略于紙寫去 無以盡了來紙 須領其妙可耳 寫蘭必三轉爲妙

〈「阮堂先生全集」卷2 與佑兒(1)〉

蘭을 치는 妙法을 말한 대목이다. 이것으로서 秋史의 예술관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데 그는 多作主義가 아니라 정신이 통일되고 분위기가 무르녹아야 한다 하는 神氣派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3. 중형에게 보낸 書翰

轉丸滔滔 冬令已屈 形如槁木 心如死灰 坐送此流光而已耶 海國尙運歛藏
而北陸則泉壤搖落 草木變衰矣 此時體候諸節 更若何……從弟依昔頑鈍 忽
患皮風之症 遍體鱗斑斑 不勝搔蝕 夜不能交睫……室憂又以老 瘡作苦云

〈「阮堂先生全集」卷2 上從兄 教喜氏(1)〉

중형 教喜에게 보낸 서한 第1信 한의 대목인데, 문안과 자기 안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신의 처지를 “물결은 마른 나무와 같고 마음은 탄재와 같다. (形如槁木 心如死灰)”는 비유는 유배에 직면한 작가의 정신적 상황의 심경의 표백인 것 같다. 이어 중형 教喜에게 보낸 서한 第2信은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인사를 드렸고 부인 禮安李氏의 他界로 인한 자탄을 내용으로 하였다.

從弟積吝積殃 又及於無辜之室人 千里海上 訃車忽至 驚越震動 猶屬第二
近四十年幹合之重 猶屬私情 屢世香火 一以委之 於不生不熟, 新來之兒子夫
婦 身上便渠 雖賢孝出常 萬萬可以幹嶽 可以渚住

〈「阮堂先生全集」卷2 上從兄 教喜氏(2)〉

부인 禮安李氏의 타계는 바로 “쌓인 허물과 쌓인 재앙을 다시 죄없는 아내에게까지 미치게 해서 천리밖 바다 가운데로 부고가 갑자기 이르니, 놀란 끝에 울부짖게”(積吝積殃 又及於無辜之室人 千里海上 訃車忽至 驚越震動) 한 것이니 바로 秋史의 뼈를 깎는 듯한 비통함이었다. 그리고 “홀아비가 되어 홀로 사는

것은 뒤에 죽는 책임을 지려 한 것이거늘 이를 할 수가 없었으니 이 어찌 살아서 세상에 있는 사람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鰥寡獨生 欲効於後 死之責而不可得 是豈生在世間事耶)”고 하여 지아비로서 망처의 초종장례를 직접 치루지 못한 일을 자탄하였다. 이러한 표백은 유배된 자신의 처지를 더 한층 자탄케 하는 것이었다. 이어

至於今日 而目下貌樣 于何觀感 有誰夾助 百爾思之 頭緒茫然 不知何以爲
好 豈料吾身目見 其如此頽替 莫可收拾 撫躬自悼 有甚於長逝之哀矣

부인을 잃은 비통이 절절하다. “가슴을 치면서 스스로를 슬퍼하는 것이 죽음을 서러워 하는 것 보다 더 심하다(撫躬自悼 有甚於長逝之哀矣)” 하는 상황은 바로 비통이 극에 달하였음을 표백한 대목이라 하겠다. 이리하여 秋史는 鰥寡之孤獨의 심연에 젖어버리는 것이다.

4. 조카에게 보낸 書翰

痛哭痛哭 此何事 此何變 想惟 天地崩塞 攀號叩僻 何以爲生 以我先兄主宏
大器度 峻整風裁 爲問庭斗杓 爲後承儀型 位品未得稱德 年齡又番上壽 困扼
窮迫於荒山 寂寞之中 止於斯境 天乎人乎 痛哭痛哭 尙復何言 尙復何言 初終
諸具 何以措變於此時 能無遺憾歟

〈「阮堂先生全集」 卷2 寄從姪 商默〉

從姪 商默에게 보낸 서한의 한 대목이다. 1843년 2월 28일에 중형 教喜의 타계한 소식을 접하고 유배지에서 그지없이 통곡하여 자탄하고 있는 내용이다. 집안의 한 아군이 돌아간 것은 마치 천지가 무너져 막혀버린 것 같은 슬픔이어서 가슴칠 만큼 사람이며 하늘이 원망스러워 통곡에 통곡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심히 염려한 것은 초 종 장례를 어떻게 유감없이 치루었는가 걱정한 것이다. 이어

汝之入吾門 纔五十日 遽罹荼毒幹蠱之道 播拄之策 專擔於窮然隻身之上 如

此情地 在古亦罕 惟當深加寬裁 克遵先訓 仰體先兄主冥冥之眷顧爲今日急務
不可但以傷孝爲戒也

죽은 종형의 초종 장례를 先訓에 따라 잘 치루도록 간곡히 당부하였다. 비
록 유배당한 처지이면서도 종형 사후의 당부가 절절하여 한 집안의 宗家の 신
분으로 그 염려가 뜨겁도록 강열한 것이다. 이어

嫂氏諸節 何持支 汝亦不至甚病耶 種種悲念之私 無以暫下 山事何以爲定
襄擇已吉耶 漠然大海之外都無聞知 北望痛哭 只欲澹然無知而已 心神震越 強
不能接續 艱此佈及 萬望 十分之護

종형 사후 嫂氏가 어떻게 지내살지 심히 병약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장례
때 山役은 어떻게 하였는지를 걱정하면서 大海 밖에 있는 자신의 신상을 자탄
하고 있다. 秋史로선 유배생활 동안에 부인 禮安李氏의 타계와 함께 종형 教
喜의 죽음은 글자 그대로 충격적이요, 불운의 연속 그것이었을 것이다.

每有書生 濫分之戒 薄亦可喜 大易不家食之吉 非家食可比 隨喜隨順 安往
而不裕如也 且大海橫臨於前 碧鯨紫鯢 皆吾所有 魴鱸不論錢 是豈家食所能也
〈「阮堂先生全集」卷2 與從姪 商一〉

從姪 商一에게 보낸 서한의 한 대목이다. 관직의 영전으로 襄陽에 떠나간
從姪에게 준 서한으로서 書生은 분에 지나치지 말라는 戒에 따라 비록 부임지
가 박하더라도 가히 기쁘게 여기도록 그리고 「周易」에 집에서 먹지 않으면 길
하다 하였으니 매양 형편에 따라 기뻐하고 순종하면 어디로 간들 넉넉치 않겠
느냐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大海는 바로 내 소유이고 그것은 돈으로 따지는
것이 못된다고 얘기하였다.

이 從姪 商一에게 보낸 서한은 秋史가 한 집안의 어른으로서 조카에게 준
단순한 서한이라기 보다 秋史 자신의 인생관의 일면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
라 하겠다. 당쟁으로 유배당한 처지가 되고 보니 保身한다는 처지에서도 당연
한 당부라 하겠으나 이러한 것은 사대부의 의식구조의 한 단면을 보여 주었다
고 생각할 수 있다.

Ⅲ. 結 論

이상과 같이 秋史 金正喜가 流配地 濟州島에서 아우들과 아들, 중형과 조카에게 보낸 漢文書翰 21편을 중심으로 이를 분석 고찰하였다. 이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秋史의 流配地 濟州島에서 보낸 한문서한은 유배생활의 전면모와 한 집안의 家間事에 대한 配慮, 부인 禮安李氏와 중형 教喜의 他界를 들은 人間의 悲痛, 유배생활 동안에 나타난 人生觀·藝術觀, 선비意識, 유배지에서 겪은 신병질환(눈병, 위장병, 풍치병, 피부병), 李時亨·姜生(琦爽) 등 제주도 문사 등과의 돈독한 교류, 그리고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정신적 상황 등이 잘 표백되어 있다.

둘째, 秋史의 漢文書翰은 개인의 단순한 用談만을 쓴 것이 아니라, 유배라는 특수한 상황에 직면하여 자신의 유배생활에서 겪은 갖가지 所懷를 진실하게 쓴 것이다. 그의 문학에서 詩아닌 散文으로서 翰墨을 무시할 수가 없다. 단순한 서한이 아니라 서한형식을 빌린 문학으로서 수필과 평론의 기능을 갖는 것이다. 그의 문집에 대부분이 서한문이라고 할 만큼 평생 동안 서한을 많이 썼고 그것을 통해서 내면생활은 물론 학문과 예술과 인생을 논하고 수필과 평론의 성격도 많아 이런 점에서 그의 한문서한은 일반의 것과 구별되어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셋째, 秋史는 서한을 쓰기 위해 삶을 살았던 人生이었다고 할 정도로 평생 동안 많은 서한을 썼던 위인이었다. 그 중 秋史가 流配地에서 漢文書翰을 많이 썼다는 것은 유배당한 처지가 되고 보니 다시는 살아서 귀향할 수 없는 절망과 단절의식으로 인해 方外人으로서 무엇인가 쓰지 않고는 못견딜 절실하고 진실한 소망 때문에 서한을 통해 표백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일반 서한과는 달리 여기엔 人生의 眞實과 文學의 眞實이 바로 표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네째, 秋史의 漢文書翰 속에 「本草綱目」 등을 비롯한 상당한 서책을 부쳐 보내도록 당부한 내용이 있다. 이것으로 당시 「通鑑」·「論語」·「孟子」 등을 학습하는 것이 고작이었던 제주도민들은 책과 가까이 하는 秋史에게서 「四書」 「五經」은 물론, 서예와 천문 및 산수학까지도 교육을 받게 되어 實事求是의 학문을 접하게 되어 제주도민의 자극과 근대학문에 큰 영향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